

=0.65590,  $R^2=0.43020$ ,  $F=48.1332$ ).

#### B.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건강관리 실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심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학교보건 및 보건교육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3. 건강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교육에 대한 특별한 훈련과 그 능력을 가진 자격있는 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서울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배 남 숙

서울시내 위치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98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지식, 태도 및 행위를 조사하여 주야간별로 비교하고 이와 관계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 대상자의 성지식 정도

① 여성 생리와 임신에 관한 지식과 정답율은 「난자가 만들어지는 기관」 64.2%, 「배란 시기」 56.4%, 「임신 원인」 95.6%, 「임신 가능한 시기」 74.5%, 「수정되는 장소」 12.7% 였으며, 대체로 주간이 야간보다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② 피임기구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경우는 71.8% 로써 주간(73.9%)이 야간(69.7%)보다 약간 높았다.

피임기구의 종류로는 「먹는 피임약», 「월경 주기법», 「Condom」, 「Loop」 등의 순이었다.

③ 성병의 종류를 알고 있는 경우가 37.9% 로써 주간(67.8%)과 야간(7.9%)간의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주로 「임질, 매독」 2가지를 잘 알고 있었다( $p < 0.01$ ). 성병의 전파방법을 아는 경우는 20.3% 로써 역시 주간(51.2%)과 야간(5.3%)간의 큰 차이

를 나타냈다. 성병의 전파방법은 「성교에 의해서」 69.9%, 「병피 접촉」 17.2%, 「Kiss」 5.7% 의 으로 대답했다( p <0.01).

④ 성지식의 출처는 「서적, 잡지」가 39.9%로 가장 높고, 「친구」 27.4%, 「학교」 22.2%, 「영화, TV, Radio」 7.3%, 「부모」 1.9% 등의 순이었다( p <0.01).

## 2. 조사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실태

①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84.0%였으며 주야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p <0.01).

② 이성교제 경험율은 60.8%로 주간(58.5%)보다 야간(63.0%)이 약간 높았으며, 현재 이성교제중인 경우 교제정도는 대부분이 「친구사이(8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을 알게된 경로는 「친구 소개」가 45.2%로 제일 높고 「교회에서」 12.5%, 「이웃에 살므로」 10.2% 등의 순이었으며, 이성교제 시기는 평균 15.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성경험율은 「자위행위 경험」 13.8%, 「Kiss 경험」 21.5%, 「애무경험」 6.2%, 「성교경험」 3.7%로 나타났으며 「자위행위 경험은」 주간이 높은 반면에, 그 밖의 경우는 야간이 높게 나타났다.

성경험시기는 「Kiss 경험」 16.3세, 「애무경험」 16.1세, 「성교 경험」 16.7세였으며, 성경험의 상대자는 주로 같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성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64.8%로서, 주야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성고민 내용은 「생리 문제」가 27.2%로 가장 높았고 「이성교제」 25.4%, 「성적 성숙의 문제」 17.4% 등의 순이었다. 성고민의 처리방법은 「친구와 상담」 39.1%, 「잡지 서적을 본다」 30.8%, 「혼자 고민중」(16.6%) 등의 순이었고, 성고민의 가장 적절한 상담자인 「부모」(5.9%), 「교사」(0.3%)와 상담하는 경우는 가장 낮았다.

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62.2%로서 주간(74.7%)이 야간(49.6%)보다 높았으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만족」하는 경우는 19.7%로 낮게 나타났다( p <0.01).

⑥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원하는 학생은 88.2%로서 주야간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p <0.01).

희망하는 내용은 「성 일반에 관한 지식」 35.4%, 「성욕의 문제와 성도덕」 18.5%, 「이성 교제」 13.3%, 「결혼과 남녀의 역할」 12.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59.9%는 관련 교과목인 「체육, 생물, 가정, 교련 시간중에」 실시해 주길 원했으며, 「정규시간으로 배정해서」가 17.5%, 「전문가를 초빙한 특별강의로」 16.9%, 「상담 실이나 양호실에 모여 소규모 토론 형식으로」 5.7% 등의 순이었다.

## 3. 성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① 성적에 따른 성지식을 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성지식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② 종교 유무에 따른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는 종교가 있는 학생(86.7%)이 종교가 없는 학생(80.7%)보다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1).

③ 교우집단내의 이성교제 정도가 개인의 이성교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이성교제 경험자」의 이성교제 지수는 0.49로서 10명의 교우중 5명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과거 이성교제 경험자」와 이성교제지수는 0.34로서 10명 교우중 3명이, 「이성교제 무경험자」의 이성교제 지수는 0.18로서 10교우중 2명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성교제중인 교우가 많을수록 개인의 이성교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교육에 대한 제언

성교육은 생활과 교육의 전영역에 걸친 인간교육이므로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하며, 성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는 청소년기에 중점적인 성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기관을 통한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습관을 기르며,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제공하고, 셋째, 올바른 성의식, 건전한 성태도, 분별있는 성윤리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탓으로 성에 대해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지식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성지식출처는 「서적, 잡지」, 「친구」 등이었고 「학교」나 「부모」를 통한 정확한 지식이 되지 못해 실제적인 성지식 정도가 낮았다. 성행동면에 있어서도 과거 연구와 비교시 현저한 증가추세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이성교제 경험율이 60.8%로 높은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서 낮은 성지식에 비해 학생들의 성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64.8%의 학생들이 성고민을 갖고 있으나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불충분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행하여온 성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성문제를 도와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실태에 반해 자율화정책등의 사회변화로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행위가 한층 개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현시점에서 성교육은 학교교육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효율적인 성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본연구도 이러한 목적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

## 우리나라 대학의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손 무 인